



## KIA '언더 콤비' 1위 지킨다



유동훈 방어율 0.56 '철벽 마무리'

손영민 승부처 마다 '든든한 허리'

'언더 콤비' 불펜의 자존심을 지켰다.

KIA 타이거즈가 16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히어로즈와의 최종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올 시즌 원정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급박했던 1위 싸움에서 히어로즈 전 2연승은 KIA에게는 천금보다 값진 승리였다. 특히 4-3의 짜릿한 1점차의 승리를 거둔 15일 경기는 올 시즌 KIA의 명승부 중의 명승부였다.

이날 두 언더투수 손영민(22)과 유동훈(32)은 나란히 승리와 세이브를 챙기며 명승부의 주역이 됐다. 선발 구름슨이 갑작스런 난조속에 아웃 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3점을 허용하며 3-3 동점이 된 6회말, 마운드에

올라온 손영민은 8개의 공으로 이닝을 마무리하며 승리의 발판을 다졌다.

유동훈은 4-3으로 앞서던 8회 2사 만루에 등 관해 실점없이 9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소중한 세이브를 기록했다.

손영민은 올 시즌 히어로즈전 10번의 등판에서 0.57의 방어율로 1승3홀드, 유동훈은 6번 등판에서 10이닝 완벽의 투구로 '0'의 방어율을 지키며 4세이브 2홀드를 거두며 '히어로즈 킬러'로 자리매김했다.

'언더 콤비' 손영민과 유동훈은 팀 1위의 숨은 공신이기도 하다. 든든한 마운드의 힘으로 올 시즌 꾸준히 선두 자리를 지켜온 KIA지만 선발진에 비해 무게가 떨어진 불펜은 약점으로 꼽혔다. 믿었던 마무리 한기주마저 부상과 부진으로 1-2군을 오가며 흔들리던 불펜에서 손영민·유동훈 '언더 콤비'는 KIA의 승리공식이었다. 마운드의 젊은 피 손영민은 올 시즌 89이닝을

소화하며 불펜진 중 가장 많은 이닝을 책임졌다.

손영민은 지난해 중간에서 활약하며 5승을 챙기긴 했지만 불안한 제구가 문제였다. 올 시즌 투구폼을 수정하며 제구가 안정된 손영민은 싱커를 장착하면서 한 단계 발전했다.

무엇보다 경험은 손영민을 키운 가장 큰 힘이다. 양현종과 함께 조범현 감독의 야심작인 손영민은 과감한 승부로 완숙미를 더해가며 믿음에 보답하고 있다.

이강철 코치와 룸메이트 유동훈도 손영민의 든든한 후원군이다. 손영민의 백넙버는 19. 핵잠수함 이강철 코치의 배변을 그대로 물려받은 손영민은 이 코치의 예제자다.

원정경기에서 한 방을 쓰는 유동훈도 경쟁자 이기전에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 많은 대선배. 유동훈으로부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을 전수받고 있는 손영민은 성실함까지 배워가고 있다.

성실함의 대명사 유동훈은 복귀 후 두 번째 시즌에서 팀의 결실을 맺고 있다. 뒤늦게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했던 지난해 유동훈은 후반기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면서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지난해 절반의 성공을 거둔 유동훈은 3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절치부심 2009시즌을 준비했고, 한기주를 대신해 뒷문을 지키며 KIA의 1위를 조력했다.

불펜 투수들은 늘 불펜에서 대기해야 하는 '마당쇠'들이다. 이들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도 적다. 하지만 손영민과 유동훈은 묵묵히 불펜을 지키며 팀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손영민

방어율 3.03

5승2패 1세이브 11홀드

■ 유동훈

방어율 0.56

5승2패 20세이브 10홀드



### 세계체조 갈라쇼 몸푸는 신수지

17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 인비테이셔널2009 세계체조갈라쇼 프레스리 허설에서 한국의 신수지가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 포스트 시즌 타격 끌어올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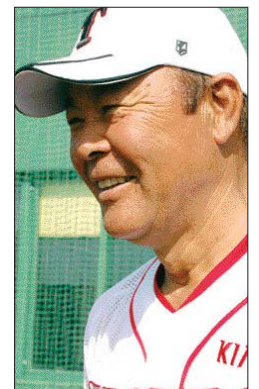
KIA 日 '전설의 타자' 마츠바라 인스트럭터 재초빙

일본의 전설적인 타자 마츠바라 마코토(65·사진)가 KIA 타이거즈 타격 인스트럭터로 재초빙됐다.

지난 미야자키 스프링 캠프에서 타격 인스트럭터로 KIA와 인연을 맺은 마츠바라 코치가 17일 입국해 18일부터 선수단에 합류한다.

지난 7월에도 1군 선수단과 동행하며 타격지도도를 했던 마츠바라는 포스트 시즌까지 타자들의 타격 기술 향상을 위한 집중 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마츠바라 코치는 통산 2천95안타에 빛나는 일본의 전설적인 타자로 현역 시절 4타석 연속 홈런과 14년 연속 세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바 있다.



록한바 있다.

1982년 요코하마 타격코치를 시작으로 요미우리, 히로시마에서 코치를 역임했던 마츠바라는 지난 2004년 요코하마 타격코치를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현재는 사업가와 야구해설자로 활약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추신수 이틀만에 '멀티히트' 박찬호 네경기 연속 홀드

한국인 타자 최다홈런 기록을 세운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방망이가 또 폭발했다.

추신수는 17일(한국시간)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메이저 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 방문경기에서 2루타 한 방을 포함해 5타수 2안타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이틀만에 멀티히트를 기록한 추신수는 시즌 타율이 0.301로 오르며 클리블랜드의 확실한 중심타자로 자리잡았다.

클리블랜드의 신인 타자 맷 라포타는 7회 2점홈런을 날리는 등 혼자 3타점을 올렸다.

전날 경기에서 추신수 대신 우익수로 출전했던 라포타는 이날은 1루수로 나섰다며 이틀연속 홈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실점 위기를 넘기고 네 경기 연속으로 홀드를 올렸다.

박찬호는 17일(한국시간) 필라델피아 시터즈스뱅크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경기에서 2-0으로 앞선 7회 초 등판해 안타 1개를 맞았지만 무실점으로 이닝을 막아 시즌 13번째 홀드를 따냈다.

박찬호는 8회 라이언 매드슨에게 마운드를 물려줬고 필라델피아는 7회말 제이슨 위스가 만루 홈런을 터뜨린 데 힘입어 6-1로 이겼다.

지난 10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 후 4경기 연속으로 홀드를 챙긴 박찬호의 평균자책점은 4.48에서 4.43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 신지애 "팬들 덕분에 슬럼프 탈출"

삼성월드챔피언십 우승 자신

'골프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팬들의 격려에 큰 힘을 받았다고 밝혔다.

17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명문 골프장 토리파인스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신지애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사실 최근 몇 달간 집중력을 잃어 경기력에 회복이 심했다. 지난주 월요일에 팬이 보내준 편지를 받고 힘을 얻었다"며 "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6월 웨그먼스LPGA에서 시즌 2승째를 거둔 뒤 좀처럼 10위 내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지 못하던 신지애는 14일 끝난 P&G 뷰티 NW이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부진 탈출을 알렸다. "올해 신인인 데 신인은 물론 올해의 선수, 삼국 부문도 선두를 달리고 있어 매우 기쁘다. 시즌 개막 목표는 신인왕이었다"고 소개한 신지애는 "이번 대회는 드라이브샷 평균 비거리가 투어에서 91위에 불과한 나에게 불리한 대회다. 그러나 지난주에 어프로치샷이나 퍼트가 좋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지애는 "오늘 프로암에서 많은 갤러리



리가 나에게 지난주 우승을 축하해주 놀랐다"며 "사실 벌써 3승을 거둔 것보다 자신도 놀라고 있다.

이번 대회는 세계 상위 20명만 출전하는 대회인데 여기에 나오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선수들이 투어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LPGA는 전 세계적인 투어다. 아시아 선수들이 우승을 많이 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 선수들이 우승을 많이 차지하거나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며 "팬들이 최고 수준의 골프를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